

VOL. **36**
2019 / 12

창요

월간건설신문

Email : khong3000@gmail.com Tel : 021-3002-9090
광고문의 : 0858-9060-0962, 0815-1066-5868



 **재인도네시아 한국 건설협의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ONTRACTORS IN INDONESIA

 **PT. Asia Chemical Industry**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힘!

ACI 건축 페인트가 만듭니다

바닥 에폭시 / 지붕 페인트 / 벽 페인트 / 보호 페인트 / 시공 가능



조도진 이사
0822-3067-5573
jodojin@aci-yuwon-biz.com

김택용 차장
081-1978-1066
kimty81@aci-yuwon-biz.com

김재옥 과장
0812-8384-8882
kimjaeok@aci-yuwon-biz.com

윤제웅 사원
0822-1348-8826
jeungyun@aci-yuwon-biz.com

한·아세안 협력기금 어디로? ... “우선 분야에 ICT 추가”



▲ 한·아세안 협력기금 3차 협의회[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자카르타서 한·아세안 협력기금 3차 협의회 개최 올해부터 두 배로 늘어난 한·아세안 협력기금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사업 우선 분야에 ICT(정보통신기술)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는 12일 오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아세안 사무국 청사에서 ‘한·아세안 협력기금 3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아세안 사무국과 한국 대표부, 협력기금 관련 용역을 수행한 경희대 ODA(공적원조) 연구개발팀이 참여했다.

우리 정부가 내놓는 한·아세안협력기금은 연간 100만 달러(11억8천만원)에서 시작해 점차 늘어 2015년부터 연간 700만 달러(82억원)였으나, 올해부터 1천400만 달러(166억원)로 증액됐다.

우리 정부는 1990년부터 작년까지 협력기금으로 총 9천 800만 달러(1천163억원)를

공여했고, 이 기금으로 한·아세안 간 인적자원 개발, 문화·학술 교류 등 400여개 협력사업이 이뤄졌다.

임성남 주아세안 대사는 이날 3차 협의회에서 “올해부터 두 배로 증액된 한·아세안 협력기금이 특별정상회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물적 토대로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아세안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 한다”고 말했다. 2020년 이후 협력기금 이행 프레임워크 연구 용역을 수행한 경희대 연구팀은 “신남방 정책의 3P(사람·공동번영·평화)와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실현,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 달성을 위해 기금이 활용돼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기금의 현행 3대 우선 분야인 ‘문화·교육·환경’에 ICT 분야를 추가해 한국의 강점을 살리는 동시에 아세안 회원국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차 협의회 참석자들은 지난 30년간 협력기금이 한국과 아세안의 청년, 공무원, 학자들 간의 교류 증진과 아세안의 역량 강화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조코위, 국영기업 감사 권한 확대... 법률 발령 방침



▲ 조코위 인니 대통령과 에릭 국영기업부 장관

에릭 토히르(Erick Thohir)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부 장관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통칭 조코위) 대통령은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s, 이하 SOEs) 개혁의 일환으로 SOEs 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률을 발령할 방침이다.

현지 매체 펨뽀의 7일자 보도에 따르면, 에릭 장관은 “가루다 인도네시아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계열사를 포함해 총 142개의 SOEs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높은 능력과 적극성을 겸비한 감사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루다 항공은 최근 구스띠 응우라 아스까라 다나디뿌뜨라(Gusti Ngurah Askhara Danadiputra) 가르다 CEO가 여객기에 할리 데이비드슨 오토바이 등을 몰래 들여왔다가 적발돼 밀수 혐의로 해임됐다. 앞서 에릭 장관은 지난 2일 하원 위원회에 출석해 ◇SOEs 관료주의 해소 ◇핵심 사업중시 ◇무익한 계열사 정리 ◇비즈니스 모델 개선 ◇단일 지주회사 프로그램 중단 등 SOEs 개혁을 위한 아홉 가지 전략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

반면 에릭 장관이 주도하는 각 SOEs의 인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싱크탱크경제개혁센터(CORE)의 피터 압둘라 연구 조사 부장은 “에릭 장관의 각 SOEs 최고 자리 임명 프로세스는 불투명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동서발전, 인도네시아에 노하우 전수

국영 발전사 PJB 엔지니어 대상 운영·관리 기술 교육 진행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발전기술개발원(충남 당진시 소재)에서 인도네시아 국영 발전회사인 PJB (Pembangkit Jawa Bali)의 엔지니어 17명(기계·전기·기술지원 분야)을 대상으로 ‘국내 발전소 운영 및 관리 노하우 기술전수’ 교육을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PJB는 인도네시아 국영전력



▲ 조상기 한국동서발전발전기술개발원장과 인도네시아 PJB 소속 직원들이 교육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공사(PLN)의 자회사이자 총 용량 7GW를 운영 중인 인도네시아의 핵심 발전사로 현재 발전소 운영 및 정비(O&M),

EPC, 컨설팅 등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한국 전력산업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보

일러, 터빈, 발전기 고장 진단 및 정비사례 △발전 Industry 4.0 솔루션 개발 현황 △드론을 활용한 신재생 설비 진단 사례 공유 △당진 1천MW 발전설비 현장견학 등으로 진행됐다.

한국동서발전 관계자는 “교육에 참석한 PJB사 엔지니어들이 정비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는 것에 착안, 국내 발전사 협력 중소기업 6개사의 우수제품을 홍보하는 자리를 갖고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울산제일일보]

PT. HANINDO EXPRESS UTAMA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물류 운송과 PROJECT CARGO 운송 전문업체
HANINDO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SINCE 1993)

업무안내

- 수출입 화물 해상, 항공 운송
- 수출입 화물 통관 (INTERNET MODUL) 및 내륙 운송
- PROJECT CARGO 및 건설 장비 운송
- 특수 장비 국내외 운송
- LCT / BARGE TRANSPORTATION
- 해외 이주 화물 (이삿짐) 운송 및 통관



LCT Transportation



BARGE Transportation



REACTOR Transportation
(LxWxH @ 35.0X7.95X8.45 M)



TRANSFORMER Transportation
(LxWxH @ 11.8X4.4X5.5 M/288 TON)

“ 항상 고객의 믿음과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 날 것을 약속합니다 ”

Granadi Building 7th Floor South Wing,
Jl. HR. Rasuna Said Kav. 8-9 Kuningan Jakarta 12950 - Indonesia
Telp: (+62 21) 2525-123 Fax: (+62-21) 2520-551, 2520-556
Email: hanindo@hanindo.net Website: www.hanindoexpress.com
HP: 081-848-5570 (Mr. CHO) HP: 0821-3247-7571 (Ms. KIM)



▲ 국토부·행복청 합동 공무국외출장단,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와 간담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협력방안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5일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와 체결한 '한국-인도네시아 수도 이전과 개발에 대한 기술협력 업무협약(MOU)'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인도네시아는 2017년부터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보르네오섬(칼리만탄섬) 동부갈



▲ 세종시청에 전시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조감도 모형.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있던 이 모형은 2008년 대통령비서실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서 장기대여 형태로 세종시청에 자리하게 됐다. 2017.10.9.

리만판주에 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한 국토부·행복청 합동 공무국외출장단은 지난 13일 바수

끼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장관을 만나 협약에 따른 세부 내용을 합의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자카르타와 공동 세미나를 열

행복청,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지원...협력방안 추진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 건설·스마트시티 경험 전수

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도시 계획·건설 과정과 스마트시티·친환경기술 등 미래도시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 인도네시아 공무원을 초청해 전문 기술·이론 중심 실무교육을 지원하고 내년 1월부터 인도네시아 현지에 '수도 이전 협력관'을 파견해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업무협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양국 장관급 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바수끼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수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 비슷한 점이 많다"며 "이번 협력 사업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도시 건설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김지영 인턴 / 20190828 트위터 @yohap_graphics 페이스북 loney.kr/letn1

말했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행복청이 2006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총괄하며 쌓아온 도시 건설 경험을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도 이전 사업에 전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철도공단, 자카르타 경전철 2단계 사업관리용역 수주 총액 183억 규모...인도네시아 철도시장 강자로 떠올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자산관리공사(JAKPRO)가 발주한 총액 183억원 규모 경전철 2단계 사업관리용역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7년 자카르타 경전철 1단계(5.9km) 시스템공사를 수주해 지난 1일 상업 운

행이 시작되도록 성공적으로 개통했다.

이어 자카르타 경전철 2단계(7.5km) 건설공사, 차량 발주(4천200억원 규모)와 사업관리를 총괄하는 사업관리용역을 수주해 인도네시아 철도시장의 강자로 자리 잡았다.

김상균 이사장은 지난해 2월

취임 이후 인도네시아를 신남방 철도사업 전략대상국으로 설정하고 수주지원 활동을 지휘해왔다.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링 1위 공기기업인 빌라마 까리아, 미국의 글로벌 기업 에이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쟁사인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의 글로벌 기업을 물리치고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도 메단 광역 경전철 등 인도네시아 철도사업은 물론 정부의 신남방정책 실현을 위해 국내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해외 철도시장에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캠코-인도네시아 자산관리공사, 부실자산 관리 정보공유 협약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인도네시아 자산관리공사와 부실자산 관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각서에 따라 두 기관은 자산관리 정보와 전략을 교환하고, 상대방 기관이 요청할 경우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관 내부에 창구를 지정하고 필요시 공동 회의를 열기로 했다.

천경미 캠코 기업지원본부장은 "부실 자산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캠코



▲ 캠코-인니 자산관리공사, 부실자산 관리 정보공유 협약(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는 해외 협력사업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캠코는 2001년부터 태국과 중국 등 15개국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45회에 걸쳐 부실채권 정리 및 국유재산 관리·개발 경험을 전수했다. 2017년 10월에는 몽골 은행 산업 회복 및 금융 안정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했다.

[연합뉴스]

남선알미늄
 (주)미안 ACE WINDOW
 이지폴딩
 현대홈도어

PT. KAISAR SINAR HISASH
 www.siansash.co.id / www.pintulipat.id

우리는 **窓門**을 만듭니다!

시안의 **窓門**전문가들이 직접 설계, 제작하고 책임시공을 약속합니다.

HEAD OFFICE / FACTORY JAKARTA
 Jl. Pahlawan KM 1, Karang Asem Timur
 Citeureup - Bogor 16810 Indonesia

Telp. : 021-8794-3838 Fax.: 021-8794-3839
 Email : info@siansash.co.id

한-인니 동반자 협의회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 적극 돕겠다”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한국-인도네시아 동반자 협의회’ 이사장 선임

‘한국-인도네시아 동반자 협의회’ (이하 협의회)가 10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협의회는 2014년 한국과 인도네시아 경제계 지도자들이 양국 간 교역과 투자 증진을 위해 친선을 도모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설립한 단체다.

한국에서는 롯데그룹과 포스코, 현대자동차그룹, 우리은행 등 35개 회원사가 있고, 인도네시아 측 협의회에는 30여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황각규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인도네시아 진출을 도모하는 많은 국내 기업에게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협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학술, 문화 분야 교류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2019 한국-인도네시아 동반자 협의회 정기총회 회원사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데일리인도네시아]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축사에서 한국에게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중요한 국가인가에 대해, “우리나라와 아세안 관계가 강화되는 중심에 인도네시아가 있다”며 “인도네시아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방문한 첫 번째 아세안 국가이자 신남방정책이 최초로 선언된 국가이며,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이다. 최근 양국

은 매년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지난해 교역 규모는 200억 달러에 달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보는 “조꼬 위도도 대통령이 지난 11월 ‘한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각료급 10명이 참여한 대규모 방문단을 이끌고 방한했다는 것은 한국과 관계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방증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차관보는 “협의회가 양국 협력의 잠재력을 실



▲ ‘한국-인도네시아 동반자협의회’가 10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사진: 데일리인도네시아]

현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협의회를 찾은 이유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 해외 네트워크·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협의회) 회원사들이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이르랑가 하르파르또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동

영상으로 보낸 축사에서 “협의회가 대인도네시아 투자를 촉진하는 핵심단체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영선 전 주 인도네시아 대사의 ‘한국-인도네시아 관계’라는 주제의 특강이 이어졌다.

김 전 대사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특별한 관계를 쌓아왔다. 1960대 당시 우리 정부는 대외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외교관계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와는 외교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할슈타인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다”면서, “인도네시아가 북한과 수교 상태였음에도 한국이 기존 원칙을 넘어서 1966년에 인도네시아와 영사관계에 이어, 1973년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한 것은 한국 외교사에 획기적인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1960년대 우리나라에 해외투자법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민국 최초 해외투자자는 인도네시아로, 한국남방개발(현지명 KODECO)이 보르네오(칼리만탄)에서 원목개발 사업을 했다”며 “당시 한인 1세대들이 밀립에서 해외 진출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대사는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가 주류를 이루고, 화인들이 경제를 주도하고 있으며 많은 종족과 문화를 갖고 있어 우리와 많이 다르고 다양하다”라며 “최근 인도네시아가 경제와 정치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역동적으로 급변하고 발전하는 만큼 우리 기업이 많이 공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2020년 인도네시아 호텔 건설 사업비 9.8조 루피아 달할 것”



건설 정보 서비스 회사 BCI 아시아(BCI Asia)는 2020년 인도네시아 호텔 건설 사업비가 총 9조 8,300억 루피아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15% 증가

한 10조 6,400억 루피아에 달할 전망이다. 전년 대비 성장률은 2020년에 축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관광지 개발이 호텔 산업 성장에 기여한다.

현지 언론 인베스틀 데일리 9일자 보도에 따르면 BCI 아시아는 최근 ‘인도네시아 건설 시장 전망 2020’를 통해 2020년의 호텔 건설 사업비가 지역별로 발리주·서부 누사틍가라주·동부 누사틍가라주가 총 2조 300억 루피아로

가장 많았다. 수마트라가 1조 8,800억 루피아(전체 19%), 자카르타 수도권이 1조 8,400억 루피아(19%)로 그 뒤를 이었다. 2016~2020년 5년간의 호텔 건설비는 총 51조 루피아로 추산됐다.

BCI 아시아의 피터 본부장(인도네시아 담당)은 “2020년은 새로운 관광지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공항 호텔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하며 “또한 호텔 산업도 활발해질 전망이다”라고 덧붙였다.

[데일리인도네시아]


PT. KUMGANG INTERNATIONAL

35년 경험과 기술의 기업!

최소한 이정도는 되어야죠 ㅎㅎ
35년 알루미늄 샷시문 생산 외길을 걸어온
장인정신으로
인도네시아 문(門)시장을 활짝 연다!















● 알루미늄 접이식 홀딩도어 ●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 ● 전동/방화 셔터 시스템 ● 방화문 & 패션도어 ● 디지털 도어록

Showroom : JL. Panglima Polim Raya No. 60A Jakarta Selatan
Tel : 021 2930 5937 Fax : 021 2930 5938

Factory : JL. Pengampelan Rt. 06 Rw. 03 Kp. Nambo Kaserangan Cirus Serang, Banten 42182
www.kgfiredoor.com E-MAIL : kumgang.int@gmail.com



PT. SEPULUH SUMBER ANUGERAH
새 가족을 찾습니다.

구분	내용
업종	건설업
구인인원	1. 토목 프로젝트 매니저: 0 명/ 성별무관/ 대졸 / 경력필수(5 년) 2. 건축프로젝트 매니저: 0 명/ 성별무관/ 대졸 / 경력필수(5 년) 3. 플랜트 배관 프로젝트 매니저 : 0 명/ 성별무관/ 대졸 / 경력필수(5 년) 4. 기계프로젝트 매니저: 0 명/ 성별무관/ 대졸 / 경력필수(5 년)
주요업무내용	각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 부터 유지 관리 단계까지의 발주자, 사업관리자, 건설 사업자, 설계/감리자 사이의 정보 흐름 관리 및 경영
우대사항	- 대졸이상 - 50 세 미만 - 건설사 경력 5 년 이상 - 인니어, 영어 능통자 - 인니 건설현장 유경험자 우대 - 토목, 건축, 플랜트 배관, 기계 관련 현장 경험 있는 자 우대
제출서류 및 선발절차	-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전 근무지별 담당업무 및 실적) - 1 차 - 서류, 2 차 - 면접, 3 차 - 대표이사 면접 * 서류제출 및 문의 IBRAHIM HWANG (Tel : 0811100937) E-mail: ibrahim-hwang@pt-ssa.co.id

WSJ “위안화, 中 무역규모 대비 국제적 활용 적어”



위안화가 중국 무역 규모와 비교해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진단했다.

WSJ은 10일(현지시간) 중국이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화에 도전하며 위안화 국제화에 힘쓰고 있지만, 국제적 활용도는 여전히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위안화 거래량은 중국 수출입액의 14배에 그친다. 이는 유로 거래량이 수출입액의 40배, 엔화 거래량이 160배, 달러화 거래량이 273배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크지 않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무역에서 달러로 거래하는 비중이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에 속한다. 오히려

러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신흥국들은 중국보다 교역에 활용하는 통화 비중이 다양하다.

역외 위안화 거래량도 2016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25.3% 증가했지만, 이는 한국 원화, 브라질 헤알화, 러시아 루블화의 증가율보다 낮다는 게 WSJ의 설명이다.

역외에서 발행된 위안화 표시 채권인 딴셴본드 시장도 축소되는 추세다.

FTSE 딴셴본드 지수는 지난 2014년 말 기준 2천800억 위안을 웃돌았으나 현재 1천150억위안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WSJ은 중국 자본시장이 폐쇄돼 있고, 자산시장이 과도하게 투기적이라 위안화의 국제적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체는 앞으로 이러한 환경에 변화가 없다면 위안화의 국제화에 대한 논의는 진전보다 허풍으로 들릴 가능성이 크며 위안화의 위상도 예누리해서 들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산업부, 5년 간 자바섬 외 지역에 산업단지 19개소 개발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10일, (RPJMN)에 따라 자바 외 지역에 산업단지 19개소를 우선



김재훈의 세무상식

RPMK APA

(이전가격 사전 합의에 대한 재무부장관령 수정안)



김재훈 대표

지난 11월 8일 국세청에서 이전가격 사전합의(APA)에 대한 재무부장관령 수정안(RPMK)에 대한 공청회(Rpat Audiensi Publik)가 있었다. BEPS Action 14 발효로 기존 재무부장관령 7호 (PMK 7/2015)에 대한 개정이 불가피하여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 수렴 후 수정을 통해 2020년도에 발효될 예정이다.

BEPS는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이란 뜻인데, 경제 주체인 기업들이 글로벌화 하고 빠르게 변경되면서 재정비되지 못한 각국의 조세체계와 조세조약의 사각지대를 경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득을 이전하고(Profit Shifting) 절세에 노력함에 따라 과세당국의 세원기반이 감소되거나 소멸하는 것(Base Erosion)을 말한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OECD는 2014년 9월 BEPS Action Plan 중 7개의 실행 계획을 발표 후 2015년 10월에 총 15개의 Action Plan으로 최종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G 20에 제출되어 승인되었다. 현재 OECD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도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자국의 세법 개정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9년 3월 기준 129개국인 BEPS Action Plan에 참여하고 있다.

현행 규정과 수정안의 차이점은 내년 1월에 발효될 재무부장관령개정안은 이전가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해 본다. <끝>

PMK 07 / 2015	RPMK APA
- 신청절차 2단계로 복잡	- 신청서 하나로 신청 완료
- Timeline이 완료시까지로 불명확	- Timelione 단계별 규정됨
- 관할세무서 관여하지 않음	- 관할세무서에서 시작됨
- Roll Back 없음	- Roll Back 규정을 둠
- 적용기간 (UAPA 3년 / BAPA 4년)	- 적용기간(모두 4년)

학력 및 경력

-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 Sertificat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asa Hukum Pengadilan Pajak)
-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위원
- 현, 재인도네시아 한인 상공회의소 세무분과 사무차장 및 고충 상담 위원회 세무 자문
- 현, 한인포스트, 월간건설신문(창조), 월간봉제신문(Koga) 세무칼럼

저서

-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TEL : 021 522 2739
e-mail : kimjhoon@bngconsulting.co.kr

한국수자원공사, 인도네시아 ‘물 관리’ 교육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가 오는 10일부터 이틀 동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술탄(Sultan) 호텔에서 ‘물관리 국제교육 성과관리 연수’를 한다.

이번 연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물관리 역량 강화 국제교육 수료생인 인도네시아 물 분야 공무원 등 50여명이 듣는다. 국제교육의 성과를 관리하고 확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국제교육 성과관리와 신규 교육 과정 △국내 물산업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한국수자원공사 물관리 기술과 협력사업 소개 등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국제교육이 역량 강화로 이어지도록 교육성과 분석과 현업적용계획 수립 등을 지원한다. 추가 교육과정과 신규 수요도 조사할 계획이다.

국내 물산업 중소기업 구매상담회는 우수 관리 분야에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8개 기업이 현지 맞춤형 전략을 통한 판로 확대에 나선다.

삼진정밀, 세계주철, 씨노텍, 에스엠테크, 영남메탈, 유솔, 자인테크놀로지, 태성스틸이 참여한다.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물관리 기본계획’ 등 협력사업도 소개한다.

‘인도네시아 물관리 기본계획’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물 문제인 높은 상수도 누수율과 홍수 피해, 수질 오염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해결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연수를 통해 국제교육 수료생들과 전략적 동반 관계를 구축하고, 높은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물관리 역량 강화 국제교육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 지역 국가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1997년부터 진행해 현재까지 97개국 수료생 4900여명을 배출했다.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물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물산업의 해외진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타임즈]

적으로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농업, 석유·천연가스, 금속, 석탄, 하이테크 산업, 항공 우주 분야에 특화된 산업단지를 건설한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아구스 구미왕 산업장관은 “19곳은 북부 수마트라의 세이망게이, 꾸알라 판중, 리아우제도주 빈판섬의 갈랑 바팡, 남부 수마트라의 판중 에남, 서부 깔리만탄의 끄따똥, 동부자바주 마두라섬의 방갈

란, 북부 말루꾸주 웨다베이, 중부 술라웨시의 팸루 등이다. 모두 개발 중이거나 계획 단계에 있다”라고 언급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인 공단은 103개이며 총 면적은 55,000헥타르이다.

지역별로 자바섬이 58개, 수마트라섬에 33개소, 깔리만탄섬이 8개소, 술라웨시섬에 4개소가 있다.

이 밖에 건설 중인 산업단지가 15개, 건설 예정의 공업단지가 10개소가 있다.

인니 자동차 부품 ‘최저임금’ 상승... 로봇 도입이 대안?



인도네시아 중소자동차부품 제조기업협회(PIKKO)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로봇 기술의 도입이 자동차 부품 제

조 업체들이 경쟁력 유지를 위한 유력한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지 매체 비즈니스인도네시아의 3일자 보도에 따르면, PIKKO 회원사 중 10~20%가

중국의 로봇 기술을 제조 과정에 도입하고 있다.

PIKKO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공장 이전 또는 자동화 기계화 등의 방안을 검토하면, 기계화 도입은 3년만에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며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동화 및 기계화가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로봇 기술은 도입 비용이 일본 기술에 비해 절반까지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제조사들이 도입에 나서고 있다.

일본 도요타 인도네시아 제조 자회사인 도요타 모터 매뉴팩처링 인도네시아(PT Toyota Motor Manufacturing Indonesia, 이하 TMMIN)의 한 관계자는 “서부 자바주 까라왕의 자동차 분야 최저임금은 태국 방콕의 최저임금을 웃돌고 있다”며 “방콕의 최저임금 개정은 5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데 반해 인도네시아는 매년 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캐벗, 반뜯 찰레곤에 카본블랙 공장 착공



미국 특수 화학 제품·기능 재료 제조 업체 캐벗(Cabot Corporation)은 지난달 말 인도네시아 반뜯주 찰레곤에 카본블랙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착공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산업부에 따르면, 투자액은 1조 4,000억 루피아로 2번째 공장이 된다. 2021년 초에 생산 개시를 목표로 한다.

캐벗의 새로운 공장 연간 생

산 능력은 탄소 기반 미립자 카본블랙이 8만~9만 톤, 마스터배치(원료 고무에 배합제를 혼합하는 공정에서 배합제를 미리 처방보다 높은 농도로 섞어 반죽한 것)가 2만 톤이다. 현지 법인 캐벗 아시아 퍼시픽 사우스(Cabot Asia Pacific South)가 운영한다.

캐벗의 다른 자회사 캐벗 인도네시아(Cabot Indonesia)가 현재 국내 유일의 카본블랙 공장을 찰레곤에서 조업하고 있다. 연산 능력은 9만 톤이다. 산업부는 캐벗의 새로운 공장이 가동되면 연간 1조 5,000억 루피아 상당의 카본블랙 수입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통신 네트워크 공급자 협회(Apjatel)에 따르면, 광섬유망 공급의 증가로 통신 사업자가 지불하는 광섬유망 임대 비용이 매년 감소하

자카르타, 전선 지중화 내년 착수...21년 완공 목표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특별주 100개 이상의 도로에서 전선이나 통신선을 땅속에 묻는 프로젝트가 내년에 시작된다.

주요 도로의 보도를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전선 지중화(電線地中化)를 추진해 도시 경관을 향상시킨다.

주영 건설사 주영 자카르타 프로퍼티인도(PT Jakarta Propertindo, 이하 Jakpro 작쁘로)의 자회사 자카르타 인프라스트럭처 프로퍼티인도(PT Jakarta Infrastruktur Propertindo)가 사업을 맡는

다. 이 회사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선 지중화 공사는 내년 초에 착수하여 2021년 중반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공사의 대상이 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아직 정식으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자카르타의 MT 하르요노(MT Haryono), H.R. 라수나 사이드(H.R. Rasuna Said), 카사블랑카(Casablanca), 가똥 수브로토(Gatot Subroto) 거리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인니 광섬유망 공급 증가 ... 임대료 매년 감소

고 있다. 현지 비즈니스인도네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특히 백본(기간통신망)에 연결된 장거리망 임대 비용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

Apjatel의 아리프 회장에 따르면, 수도 자카르타와 발리를 연결하는 광섬유 네트워크의 임대료는 현재 통신 속도 1기가(Gbps) 당 월 2,500만 루피아로, 2년 전 월 6,000만 루

피아에서 크게 하락했다. 아리프 회장은 “임대료가 더 떨어지면 네트워크 사업자는 이익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 등 단거리 광섬유망 임대료는 통신 속도 1Gbps에 월 1,000만~2,000만 루피아로 이전에 비해 큰 하락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실크로드 인도네시아는 디자인 연구소로서 그간 코파의 힘, 미디어 코리아, 건설신문 창조를 발행 해 왔고 기업 CI, 홍보용 카달로그, 북 디자인외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 해 왔습니다. 이제 직접 인쇄공정을 수행 해 낼 수 있는 설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늦깎이 출발이지만 항상 곁에서 함께 하길 바랍니다.

2020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제작합니다

카드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스티커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직개편... 정부 신남방정책 지원 · 자치성 강화

글로벌사업본부 · 신도시사업부문 신설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 · 초광역경제권 개발 선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연합뉴스TV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수도권 30만호 공급 및 초광역경제권 개발 선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16일 밝혔다.

LH는 조직개편으로 민간 국외 진출과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에서 사업모델 발굴부터 준공까지 사업을 완결적으로 수행하는 자치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미얀마·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조성, 쿠웨이트 신도시 분사업약정,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프로젝트 참여 등 국외사업의 체계적인 수행과 국내 기업의 국외 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사업본부’를 신설한다.

글로벌사업본부는 국내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시 수출과 외연 확장에 주력한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건설을 완수하기 위해 개발계획과 사업관리를 총괄하는 ‘신도시사업부문’도 신설한다.

특히 정부의 선교통·후입주 원칙에 부응하는 적기 교통망 구축을 위해 ‘신도시광역교통개선단’도 설치했다.

인도네시아 산업계는 제4차 산업혁명이 오히려 고용 창출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자카르타에서 4~7일에 개최된 기계 박람회 ‘매뉴팩처링 인도네시아 2019’에서 국영통신 텔레코무니카시 인도네시아(PT Telekomunikasi Indonesia)의 IoT(사물 인터넷) 야궁 과장은 “디지털 기술은 생산성 향상과 리스크 완화, 생산 비용 절감에 기여한다”고 말하며 “단순 작업의 직종이 사라지는 점은 불가피하지만, 신생기업의 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정보통신기술사업협회(APTIKNAS) 자카르타 지부의 프랭키 부장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공통 과제는 기술 혁신을 담당하기 위한 인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고 말하며 “또한 고용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스킬업 교육 등 인재 육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컨설팅 기업 맥킨지&컴퍼니는 제조업의 자동화에 따라 2030년까지 제조업 관련 단순 노동직 2,300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자동화에 따른 2,700만~4,600만명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기조 교수의 **경제산책**

10가지 전략 기술

80년대 후반에 ‘end-user computing의 효과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했다. end-user란 자기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사람인데 자가운전자를 end-user driver라고 하면 딱 맞는 설명이다. 지금은 누구나 다 자가운을 운전하듯이 PC를 이용하여 업무를 보지만 그때는 PC가 어렵고 무섭고 놀라운 존재였던 것 같다.

중학교 때 시골학교라서 농업을 배웠다. 식물의 3대 영양소로 질소(N), 인산(P), 칼리(K)가 있고 또 다른 여러 광물이 있어야 식물이 튼튼하게 자란다고 한다. 싹을 틔우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빛과 공기, 습도와 온도가 조화되어야 한다는 것도 배웠다. 그것이 어디 식물에게만 해당하는 것인가? 흥미로운 것은 통(桶)의 이론이었다. 나무 조각 여러 개를 세워 만든 통이 있는데 그 속에 담는 물의 양은 다른 여러 조각들이 제 아무리 높아도 가장 낮은 조각의 높이까지만 담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복잡한 세상에서 어느 하나만 잘해도 된다는 것과는 대조되는 의미 깊은 이론이다. 학교 교육이 전인(全人; whole man)을 기르기 위해 지, 덕, 체를 가르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전문화된 시대를 살면서 아는 것 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고 지식은 빌려 쓰면 되는 것이라 하니 다 못 배울 것에 애 태울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기업을 도와주고 가르쳐 주는 서비스업이 늘었다. 소위 컨설팅 회사이다. 전 세계 100개국, 15,600여 기업에 컨설팅을 해서 먹고 사는 회사, 가트너 주식회사는 S&P 500 소속 기업이며, 가트너의 고객사 중 73%는 포춘 500대 기업에 해당한다. 그런 기업들에 한수 지도를 한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그들은 “어느 때 보다도 IT의 중요성이 커진 지금, 우리, 가트너가 제공하는 인사이트는 글로벌 비즈니스와 기술 리더들의 성공을 이끌어 줄 열쇠이며 가트너는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로서 고객 기업들의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 인사이트(Insight)는 통찰력이다. 자료의 수집과 조사, 분석도 필요하지만 척 보고 아는, 직관을 말한다.

이들은 재무, 인적자원, 산업, 정보기술, 혁신과 전략, 법무와 법규, 마케팅과 소통, 조달과 운영, 위험과 감사, 판매와 서비스, 공급망 등의 분야로 나누어 웨비나, 팟캐스트, 전문기고, e-books 등으로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계약하면 맞춤 자문을 한다. 마치 농장에서 작물을 길러 내듯이... 그러니 이들의 조직도 거대하다.

가트너가 매일같이 주장하고 연구하는 주제를 보자. ▲미래는 스스로 발명되지 않는다. ▲오늘날, 기업인이 창조한다. ▲변화의 속도가 결코 이전처럼 느리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는가? ▲훌륭한 매니저는 우선순위에 따라 과업을 추구함으로써

서 종업원의 성과를 26% 향상시킨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더 이상 석유가 아니고 데이터이다. ▲남녀간의 임금 격차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간의 신뢰보다도 국제적으로 기업간의 신뢰가 더 중요하다. ▲향후 5년간 유용한 인력을 어디서 구하는가?

2019년 10월에 가트너가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2020년의 주요 전략 기술 트렌드를 발표하였다. 인간 중심의 스마트 공간은 2020년 가트너 전략 기술 트렌드의 주요 영향을 구성하고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구조”이며, 인간을 기술 전략의 중심에 두는 것은 기술의 가장 중요한 일면을 강조하고, 기술이 소비자, 종업원, 비즈니스 파트너, 사회 그리고 기타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조기조 박사

서 종업원의 성과를 26% 향상시킨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더 이상 석유가 아니고 데이터이다. ▲남녀간의 임금 격차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간의 신뢰보다도 국제적으로 기업간의 신뢰가 더 중요하다. ▲향후 5년간 유용한 인력을 어디서 구하는가?

2019년 10월에 가트너가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2020년의 주요 전략 기술 트렌드를 발표하였다. 인간 중심의 스마트 공간은 2020년 가트너 전략 기술 트렌드의 주요 영향을 구성하고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구조”이며, 인간을 기술 전략의 중심에 두는 것은 기술의 가장 중요한 일면을 강조하고, 기술이 소비자, 종업원, 비즈니스 파트너, 사회 그리고 기타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조기조(曹基祚 Kyo Cho)
경남대학교에서 30여 년간의 교수직을 마치고 명예교수로 있다. Korean Times of Utah에서 오래도록 번역, 칼럼을 써 왔다. 최근에 ‘스마트폰 100배 활용하기’를 내었다.(공저)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비상근)
kjcho@uok.ac.kr
(82) 10-9080-2449



BS 476 Fire Test “CLASS 0”

인도네시아 최초 획득...

건축 자재 (Building and Construction Materials)



■ Duct / Pipe / Roof Insulation(보온 단열재)

가방 제조업체 부자재 공급 및 가공 (Bag Materials)



자동차 내장재(전자선 가교 폼): Door Trim, Sun Visor, Headliner 등
스포츠&레저(실내 및 야외매트, 구멍조끼, 수영보드, 헬멧 및 장갑, 신발 Insole)

두께 : 2mm ~ 50mm , Density : 25kg/m3 ~ 200kg/m3

본 사 : Jl. Raya Serang KM. 16, 8 Desa Telaga Cikupa, Tangerang 15710 Indonesia
 TEL : (021) 5940 4086, 5940 4087 FAX : (021) 5940 4084
 한국인 직통 : 0815 1902 0499(제환영부장) E-Mail : yjeh@toilon.co.id / yjeh@toilonindo.com Website : www.toilon.co.id



아이오닉 전기차, 인도네시아에 첫선 ... 현대차-그랩 호출 서비스

내년 초 자카르타에서 시범 서비스 시작



▲ 모빌리티 서비스 연구용으로 쓰이는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대자동차[005380]가 인도네시아에서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처음 선보이며 동남아시아 최대의 차량공유 업체인 그랩과 함께 전기차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를 시작한다. 현대차와 그랩은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해양투자조정부 청사에서 전기차 기반의 차량 호출(카셰어링) 서비스 계획을 밝혔다. 양사는 내년 초부터 아이오닉 일렉트릭으로 자카르타 지역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를 시

작하고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운영 대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시범사업에 쓰일 아이오닉 일렉트릭 20대를 그랩에 공급한다. 그랩이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소속 운전자에게 대여하고 운전자는 고객에게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1회 충전 최대 주행거리 271km에 달하고 급속충전기로 충전하면 1시간 이내에 80% 충전이 가

능하다. 배출가스가 없고 유류비가 절감돼서 차량 호출 서비스에 적합하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양사는 이날 인도네시아 루훗 빈사르 반자이판 해양투자조정부 장관 등과 현대차 최윤석 인도네시아 생산법인장, 그랩 리드즈키 크라마디브라타 인도네시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오닉 일렉트릭 전달식을 했다. 그랩과 전기차 모빌리티 서비스는 인도네시아 공장 투자 협약 발표 이후 첫 번째 프로젝트다. 현대차는 이번 서비스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로 삼는 동시에 인도네시아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도 보조를 같이 하겠다는 것이 현대차의 구상이다. 현대차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기차 세계 혜택을 강화하는 등 전기차 보급 확대에 적극적이다.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는 순수 전기차는 특별소비세율 0%가 적용되며 추가 인센티브도 검토되고 있다. 이에 앞서 현대차와 그랩은 올해 초 싱가포르에서 코나 일렉트릭 200대를 활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대·기아차는 그랩에 2억7천500만 달러를 전략 투자하고 그랩의 사업 플랫폼에 전기차 모델을 활용한 모빌리티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현대·기아차와 그랩은 전기차를 활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를 동남아 주요 국가로 점차 확대하고 모빌리티 서비스

에 최적화된 전기차 모델 개발에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현대차 최윤석 인도네시아 생산법인장은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그랩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서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랩 리드즈키 크라마디브라타 인도네시아 대표는 “인도네시아와 동남아 지역에서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재정의하는 데 현대차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부자바주, 빠뎀반 항구 주변에 도시 개발

인도네시아 서부자바주 정부는 수방군에 엔차관으로 건설되는 빠뎀반 항구 주변에서 도시를 개발할 계획이다. 서부자바주 정부는 3일 국제협력기구(JICA)과 진행한 회의에서 개발 관련 조사를 JICA에 요청했다. 현지 언론 끈끈 6일자 보도에 따르면 JICA 인도네시아 사무소의 야마나카 신이치 소장 은 “현재 조사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내년 초에는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리드완 카밀 서부자바주지사는 “정부 청사와 비즈니스 시설이 함께 있는 공간으로 개발한다. 북부 자카르타에 있는 국내 최대 항구인 판중 뿌리옥 항구는 주변 접근성이 안 좋아 빠뎀반으로 정해졌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빠뎀반 항구는 내년 6월에 일부 공용될 예정이다.



3기로 나누어 개발을 진행,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총 투자액은 약 50조 루피아에 이를 전망이다.

이니 부동산 대기업 시나르마스 랜드-찌뜨라마스, 바뎀에 디지털 허브 개발

인도네시아 부동산 대기업 찌뜨라마스(Citramas)와 시나르마스 랜드(Sinarmas Land)는 리아우제도주 바뎀에서 디지털 허브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11일자 보도에 따르면 양사가 절반씩 출자한 합작회사 찌뜨라 시나르 글로벌(Citra Sinar Global)이 바뎀에 62헥타르 규모의 디지털 허브 ‘D 타운’을 개발한다. 이 지역은 싱가포르에서 페리로 30분 거리에 위치한다. 투자 금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찌뜨라마스와 시나르마스 랜드는 제1기 개발 사업에 5헥타르 규모의 사무실을 건설한다. 2024년에 완공될 예정인 제2기 사업에서는 상업 시설을



정비한다. 2024년까지 5,000명의 디지털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바뎀 자유 무역 지역의 운영과 개발 정책을 주도하는 BP바뎀(바뎀자유구역감독청, BIFZA)은 바뎀 경제가 연평균 8.78% 성장, 2023년에 14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3년 투자액은 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 개설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 국립중앙박물관 / 서울 월드컵경기장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새병원 / 영등포 타임스퀘어 / 중국 심양 롯데월드
리비아 트리폴리 JW 메리어트 호텔 / 인도네시아 창신 나이키공장
인도네시아 태평양 워노기리 봉채공장단지 / 이화여대 서울병원 및 의과대학
폴란드 및 멕시코 만도 공장 / 베트남 롯데몰 하노이 / 용산 드레곤시티 호텔
스타필드 하남 / 말레이시아 아모레퍼시픽 공장 / 베트남 투타엠 에코스마트시티
중국 칭도 세브란스병원 **외국내외 다수 실적 보유**



- 차별화된 디자인
- 우수한 기술력
- 건축 설계
- 건설사업관리(CM/PM)

1967년 건축설계 전문회사로 출발한 정림건축은 탁월한 디자인과 기술력으로 전세계 30여 개국에서 4,700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으며, 2017년 영국 BD가 선정한 대한민국 1위 글로벌 건축회사입니다.

주요 설계 분야
복합시설, 업무시설, 산업시설, 숙박시설, 상업시설, 의료시설, 주거시설, R&D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JUNG L I M | INDONESIA
#506 Tower 2, Synthesis Square,
Jln. Gatot Subroto Kav. 64, No. 177A South Jakarta
Mobile +62 (0)852 1561 9583 / E-mail global@junglim.com
www.junglim.com

자카르타-찌깁 고가고속도로 개통... 만성 교통체증 완화

인도네시아 최장 고가고속도로 36.4km... 중간 출구없어
12월 15일부터 일반 차량 운행... 요금 확정될 때까지 한시적 무료



▲ 지난 12일 공식 개통된 자카르타~찌깁 고가고속도로. [인도네시아 대통령궁]

자카르타-찌깁 유료고가 고속도로(Jakarta-Cikampek II elevated toll)가 이달 12일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준공식을 열었다.

일반 운전자들에게는 이달 15일부터 새로 개통된 유료고가도로가 개방됐으며, 요금이 확정될 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017년 7월에 착공해 2년 반

만에 완공한 자카르타-찌깁 유료 고가고속도로는 교통량이 가장 많은 기존의 자카르타-찌깁 고속도로 위, '찌꾸니르 인터체인지'부터 '까라왕 바랏'까지 (dari Simpang Susun Cikunir hingga Karawang Barat) 연장 36.4km 고가도로로 건설됐다.

총 건설비 16조 2,300만 루피아(미화 11억 5천만 달러)가 투입된 이 고가고속도로는 중간에 출입구가 없어 자카르타에서 서부자바와 중부자바, 동부자바, 발리 방면 등 장거리 자가용 소형차량만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따라서, 트럭과 버스는 고가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없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긴 고가고속도로인 자카르타-찌깁 고가고속도로의 최고 시속은 60km로 제한되며, 교통법규 위반은 무인카메라로 단속한다. 고가고속도로 여러 곳에 교통경찰과 응급차량이 상시 대기하고 있다.

그동안 만성체증으로 시달려 온 자카르타-찌깁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준공 소식을 듣고 일제히 환영했다.

서부자바주 반둥 출신으로 자카르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레스푸 오까 유디피아(24) 씨는 자카르타포스트

와의 인터뷰에서 “주말이나 연휴 때 자카르타에서 반둥까지 가려면 5시간 정도 걸린다(평일에는 2시간 정도)”며, 시간이 많이 단축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연휴 때면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는 자카르타-찌깁 고속도로는 이번 연말연시에 교통체증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한편 국영 고속도로관리회사 자사마르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연말연시 귀성 차량이 12월 20일과 21일 및 12월 27일에 절정을 이르고, 귀경 차량은 내년 1월 1일과 2일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말연시 귀성 차량 중 69%가 자카르타-찌깁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자고라위 고속도로와 머락 고속도로는 각각 15%와 9%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인도네시아]

동서발전, 인니 '칼셀-1 발전소' 준공...상업운전 개시

한국동서발전이 인도네시아 '칼셀-1' 발전소를 준공하고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동서발전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남부 칼리만탄주 탄중 지역에서 칼셀-1 발전소를 종합 준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칼셀-1 발전소는 100MW짜리 발전기 2기로 이뤄진 총 200MW 용량의 순환유동층 발전소로, 지난 9월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데 이어 2호기가 이번에 상업운전에 들어가면서 칼리만탄 지역 전력 계통의 20%를 책임지게 됐다.

총사업비 5억4천500만달러 규모의 칼셀-1 발전사업은 동서발전이 사업개발과 운영을 맡고 현대엔지니어링이 발



▲ 인도네시아 칼셀-1 발전소 전경 [한국동서발전 제공]

전소 설계·조달·시공(EPC)에 참여했다. 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산업은행이 금융 지원을 해 한국형 해외발전사업의 성공 모델로 평가됐다. 칼셀-1 발전사업은 인도네

시아전력공사와의 전력판매 계약(PPA)에 따라 앞으로 25년간 전략 판매를 통해 27억 달러의 매출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GE 인도네시아, 내년에는 변압기 수출 확대 계획

미국 전기 제너럴 일렉트릭(GE)의 인도네시아 법인, GE 인도네시아(GE Indonesia)는 내년 변압기 수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지 비즈니스인도네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동부 자카르타에 있는 산하 기업의 공장 가동률을 높여 대응한다.

GE 인도네시아의 한드리 최고경영자(CEO)는 “변압기 수출을 재개한 직후이며, 현재는 생산량의 대부분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확대는 내년 목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변압기는 GE 산하 우닌도(PT Unindo)가 동부 자카르타의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



다.

한드리 CEO는 “변압기를 연간 120대 생산하고 있다”며 “공장 가동률을 밝힐 수는 없지만 가동률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닌도는 GE 산하의 프랑스 알스톰(Alstom)과 인도네시아 국영 전력 PLN(PT PLN)이 1969년에 설립한 합작 회사다. 주로 전압 275kV(킬로볼트)까지의 각종 변압기와 스위치 기어를 생산하고 있다.


www.f1-logix.com

인도네시아의 새벽을 여는 기업!

4PL

항공, 해상운송

내륙운송

통관대행

물류 컨설팅

물류 OS

W&D 사업

Leading Logistic Provider



Wisma Korindo 9th FL,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12780, Indonesia

Telp. : +62-21-797-6237
Fax : +62-21-797-6015
E-mail : kor@f1-logix.com

MRT 자카르타-KAI, 합작 회사 설립 기본 합의서에 서명

인도네시아 국영 철도 기레타 아삐 인도네시아(PT Kereta Api Indonesia, KAI)와 수도 자카르타 대량고속수송시스템(MRT)을 운영하는 MRT 자카르타(PT MRT Jakarta)는 지난 9일 수도권 교통망의 통합을 추진하는 합작 회사의 설립에 대한 기본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사는 향후 역과 주변 지역 도시 개발을 협력하여 진행한

다는 방침이다. 아니스 바스웨단(Anies Baswedan) 자카르타특별 주지사에 따르면, 새로운 회사의 출자 비율은 MRT 자카르타가 51%, KAI가 49%가 된다.

내년 초 설립을 목표로 수도권 대중 교통 통합 운영과 환승역 정비, 대중교통지향형개발(TOD) 사업 등을 진행한다. 아니스 주지사는 “대중 교통간 연결이 향상되면 편리성

이 높아진다”며 “자카르타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가 되려면 교통의 통합이 중요하다”고 경제 효과를 기대했다.

앞서 MRT 자카르타와 KAI의 협력은 조코 위도도(통칭 조코위) 대통령이 자보데타벵(Jabodetabek : 자카르타특별 주, 서부 자바주 보고르, 데벵, 브카시, 반푼주 땅으랑)의 대중 교통 운영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정책을 표명한 것

에 대한 조치다. 한편 MRT 자카르타는 내년 4분기에 주영 버스 회사 트랜스포

르파시 자카르타(PT Transportasi Jakarta, 이하 트랜스 자카르타)와 시스템 통합도 계획하고 있다. MRT 자카르타의 윌리엄 사장에 따르면, 통합 시기는 내년 4분기(10~12월)가 될 예정이다.

스리 재무 장관, 포브스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76위 선정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Sri Mulyani Indrawati)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에 이름을 올렸다.

현지 언론 폼빠스의 보도에 따르면, 스리 장관은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Forbes)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100 Most Powerful Women)’ 순위에서 인도네시아인 중 유일하게 76위를 차지했다.

포브스는 스리 장관이 납세자 준수 지원 등 세제 개혁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수입을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스리 장관은 2004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의 주도 하에 국가개발기획부(바삐나스, Bappenas)의 수장이 되면서 정부 부문에서 경력을 시작했으며, 조코위 정권에서

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재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스리 장관은 앞서 세계적 권위의 금융 전문지 ‘파이낸스 아시아(Finance Asia)’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최우수 재무 장관(Finance Minister of the Year)에 3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이 순위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9년 연속 1위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한국인 중 유일하게 87위에 올랐다.

이 밖에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40위, 대만 차이잉원 총통 41위,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42위, 니콜라 스테전 영국 스코틀랜드국민당(SNP) 대표 50위, 스웨덴 출신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100위 등으로 나타났다.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쾌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2. 25mm Trimdek


3. 35mm Spandek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5. Boltless-Seaming Type 55mm


6. Genteng Metal (기 와)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 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소리 항공

서울 ~ JABOTABEK 원데이 배송 시스템

한국, 중국, 홍콩, 베트남 (ADP 국제운송)

특송 쿠리어, 핸디캐리 전문업체
20년 노하우 핸디캐리, 자체 특송 쿠리어 통관 시스템

도로명 주소 :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246, 1층 19번 (공항동, 대한항공 화물청사)
Telp : 02-2663-7373 / 2663-1947
Fax : 02-2663-1948
E-mail : support@soriair.co.kr

BINTANG JAYA TRANS
Ruko Sentra Bisnis Artha Gading Blok A6A No.16
Kelapa Gading Barat, Jakarta Utara 14240 Indonesia
Tel : +62 21 4587 4577 / +62 21 2452 1355

JAKARTA MANAGER
KIM EUK SOO M : +62 813 8075 1111
KIM KEON WOOK M : +62 812 8411 37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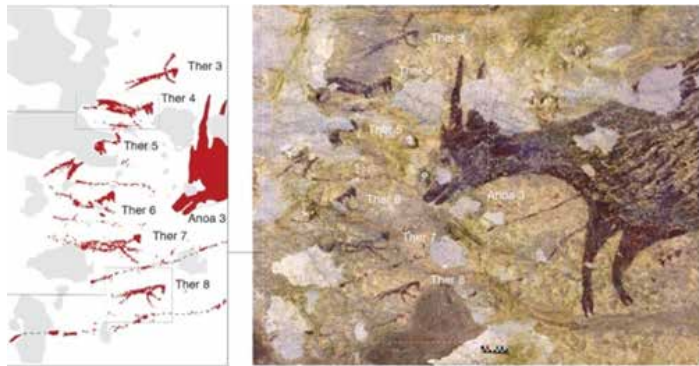
인니 석회동굴서 4만4천년 전 최고(最古) 구상화 발굴

초자연적 존재 ‘반인반수’ 묘사도 4천년 가량 앞서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의 석회동굴에서 반인반수(半人半獸)의 사냥을 묘사한 듯한 약 4만4천년 전 벽화가 발굴됐다.

프랑스 라스코 동굴 벽화보다 약 2만5천년 앞서는 것으로 스토리를 담은 구상화로는 가장 오래된 벽화로 학계에 보고됐다.

이 벽화는 지난 2017년 12월에 술라웨시섬 남서단의 레앙 불루 시흥4 동굴 탐사 중 천정에 난 작은 틈으로 연결된 공간에서 처음 발견됐다. 이후 호주 그리피스대학 고고학 교수 맥심 오버트 박사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이 본격적인 발



굴에 나서 확인한 연구결과를 과학저널 ‘네이처(Nature)’ 최신호에 발표했다.

벽화는 4.5m 너비의 벽에 반인반수 8명이 창이나 로프로 보이는 가는 물체를 들고 6마리의 멧돼지와 작은 들소들

에 접근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이는 사냥감을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벽화는 인류 최초의 구상화는 약 4만년 전 현생인류가 유럽에 도착한 직후 그리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통념을 뒤집

는 것으로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더 먼저 시작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함께 벽화내 사냥꾼이 얼굴에 긴 부리를 갖고 있거나 꼬리를 달고 있는 반인반수로 묘사된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지적됐다.

연구팀은 이 반인반수들이 신화적 존재나 샤머니즘에서 자주 나타나는 “동물영혼 구원자”를 표현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사냥 장면을 그린 것이 아니라 샤머니즘 의식이나 동물의 영혼을 묘사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벽화 중 동물 그림 위에 붙은 광물인 이른바 ‘동굴 팝콘(cave popcorn)’에 대한 우리롭게 연대측정을 통

해 4만3천900년 전이나 그 이전에 그려진 것으로 분석했지만 선사시대 인류의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반인반수 그림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연대측정을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반인반수 그림만 나중에 추가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동물 그림과 툰이 같고 보존상태도 비슷한 것으로 볼 때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지적됐다.

반인반수는 술라웨시섬 벽화 이전에는 독일의 한 동굴에서 발굴된 약 4만년 전의 ‘사자인간(Lion-man)’ 조각상이 가장 오래된 것이었다.

술라웨시섬에는 석회동굴이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지난 2014년에는 스텐실 방식으로 그린 4만년 된 손바닥 그림이 발견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한인회 창립

12월 14일 발기인 9명이 정관 승인 및 임원 추대 후 창립총회 개최 정성화 초대 회장 “교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과 울타리 역할하는 한인회 될 것”

지난 12월 14일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에 한인회가 결성됐다.

칼리만탄한인회 발기인 대표인 나성문 씨는 “그동안 칼

리만탄 한인들의 교제와 협력, 보호를 위해 한인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한인회 창립을 준비해 왔으며, 그 결과 12월 14일 발기인 총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칼리만탄한인회 발기인 9인은 이날 오후 4시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발릭파판에 위치한 맥스원호텔에서 칼리만탄한인회 설립 발기인 총회를 열어 정관을 승인하고 정성화 초대 회장을 비롯한 임원 6인을 추대했다.

이어 오후 6시부터는 한인회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칼리만탄한인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리잘 에펜디 칼리만탄 발릭파판시

장도 참석해 한인회 창립을 축하했다.

김창범 주인도네시아대사는 영상 축사를 통해 “향후 수도 이전 계획이 있는 칼리만탄에 한인회가 출범하게 된 것은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며 “한인회 창립을 통해 칼리만탄에서 한인사회가 지속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발전하고 번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리잘 에펜디 칼리만탄 발릭파판시장은 “발릭파판과 동부 칼리만탄은 신수도 건설 발표로 인해 앞으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며 “인니와 한국 양국이 상호 협력해 함께



▲ 지난 12월 14일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에 한인회가 결성됐다. 이날 오후 6시 맥스원호텔에서 열린 창립총회 참석자들 (사진 칼리만탄한인회)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또 “한국 기업이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칼리만탄한인회를 통해 협조 요청을 해오면 최대한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정성화 초대 회장(PT. Ese 하쿠나 마타타 대표)은 “35년간의 인니 생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민들에게 버팀목이 되는 든든한 뿌리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는 겸손하

게 다가가는 울타리로, 또 현 지인들과는 문화적, 경제적 교류의 다리역할을 하는 한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재인도네시아 칼리만탄 한인회 1대 임원은 다음과 같다.

- ▲초대회장: 정성화 ▲감사: 이성현 ▲수석부회장: 나성문 ▲부회장: 권금선, 윤상원 ▲사무총장: 배성운

[재외동포신문]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JOUN DOOR



Flooring, Skirting



PT. DONG SEO Furniture
Doors and Furniture Specials

Furniture

DONGSEO

동 서 가 구

Kawasan Industri Manis II, Jl.Palm Manis IV No.61
Gandasari, Jatiuwung, Tangerang Banten - Indonesia

Marketing contact :
☎ +62 021 591 5637
✉ dongseowood@yahoo.co.id

Our Product :

- DOOR
- + Deco Sheet
- + HPL
- + LPM
- + Duco
- + Veneer

- FURNITURE
- INTERIOR MATERIAL
- FLOORING
- SKIRTING

